

K-조선의 기술주권 강화,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본격화한다.

- 정부, 가스공사, 조선사 등 LNG 화물창 국산화 성공을 위한 민관 워킹그룹 본격 가동

【관련 국정과제】 30.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

56.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-해양강국 건설

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.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12월 22일(월)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「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」 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, 기획재정부, 해양수산부, 한국가스공사, HD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.

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·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. 척당 약 3,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-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,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, 정부는 LNG 화물창을 ‘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’로 선정하고 R&D, 기반 구축,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. 지난주 산업부의 ‘2026년 업무보고’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.

오늘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~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. 한국형 LNG 화물창인 KC-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, 아직 대형선박에 적용해 본 사례가 없는 초도 기술로서, 대형선 최종 실증을 위해서는 기술검증 방안, 비용 및 기술 리스크 지원 등 각종 제반여건 마련이 중요하며, 동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.

산업부는 “LNG 화물창은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, 실증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1분기 내 최종 실증방안을 확정하겠다”고 밝혔다. 아울러, “대한민국이 선박 건조 강국을 넘어 기자재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, 대형사 뿐 아니라 지역 기자재 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, LNG 화물창을 포함한 핵심 선박 기자재 육성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장	책임자	과 장	김의중 (044-203-4330)
		담당자	사무관	홍길표 (044-203-4334)
	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 (代)	한주현 (044-203-5231)
		담당자	사무관	윤철희 (044-203-5216)

